



전지적 청년시점 - 대전에 이사온다는 것

도시가 점점 나이들어 가고 있다. 자연적 인구 증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핵심생산가능인구(20~30대)의 유출은 지역생산활동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중요한 문제다.

대전은 지역 내에 대학이 16개나 있어 청년 인구 유입을 위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대학 졸업 후 지역을 떠나는 경향이 많아서 이들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정주여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번호에서는 『대전시 인구 변화 특성과 인구 유입 정책제안』(연구책임 주혜진)에 나타난

대전시 청년인구 현황과 이동, 관심사, 전출입 이유 등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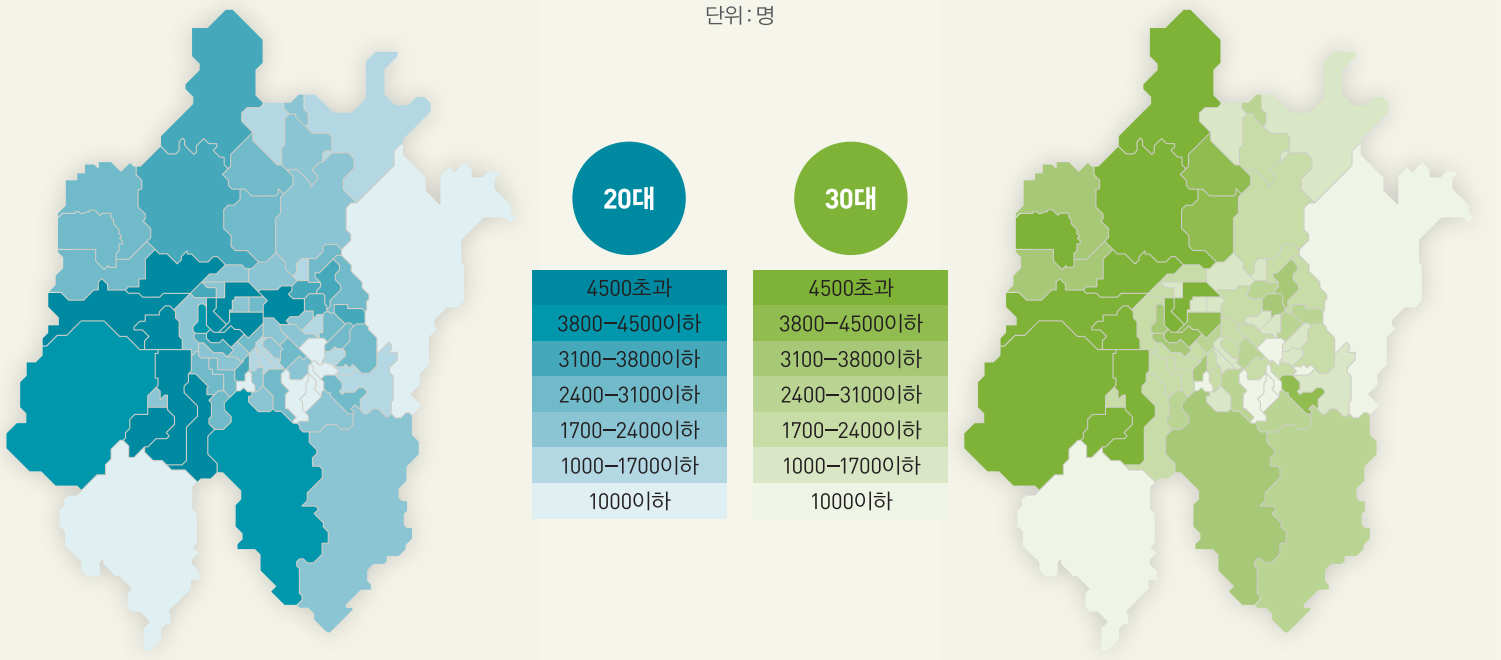
대전 청년들은 어디에 살까?

2017년을 기준으로 자치구별 총인구 대비 2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구이며 30대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유성구로 나타났다. 20대는 서구와 유성구 도심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30대는 유성구 전반과 가수원동, 관저2동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대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유성구 온천2동으로 8,129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30대는 9,007명이 거주하고 있는 원신동에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행정동별 청년인구 분포 현황

단위: 명



최근 5년간 대전의 청년 인구 이동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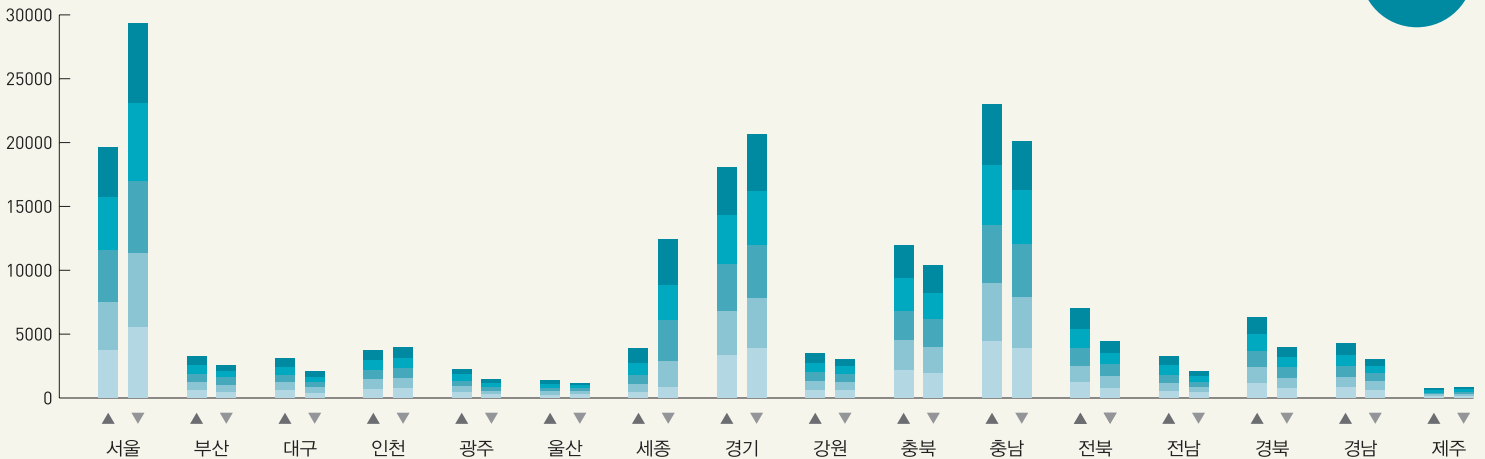
최근 5년간 대전에 전출입한 20대 청년 인구는 충남에서 가장 많이 옮겨오고, 서울로 가장 많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세종시로의 전입과 전출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차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서울과 경기 지역 외에는 가까울수록 이동이 많고,

멀수록 이동인구가 적은 특성을 보여준다.

30대 인구는 충남, 서울, 경기 순으로 전입인구가 많으며 세종, 경기, 충남 순으로 전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세종으로의 전입 전출 격차가 2014년부터 커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5년간 전출입 인구 누적 현황 (2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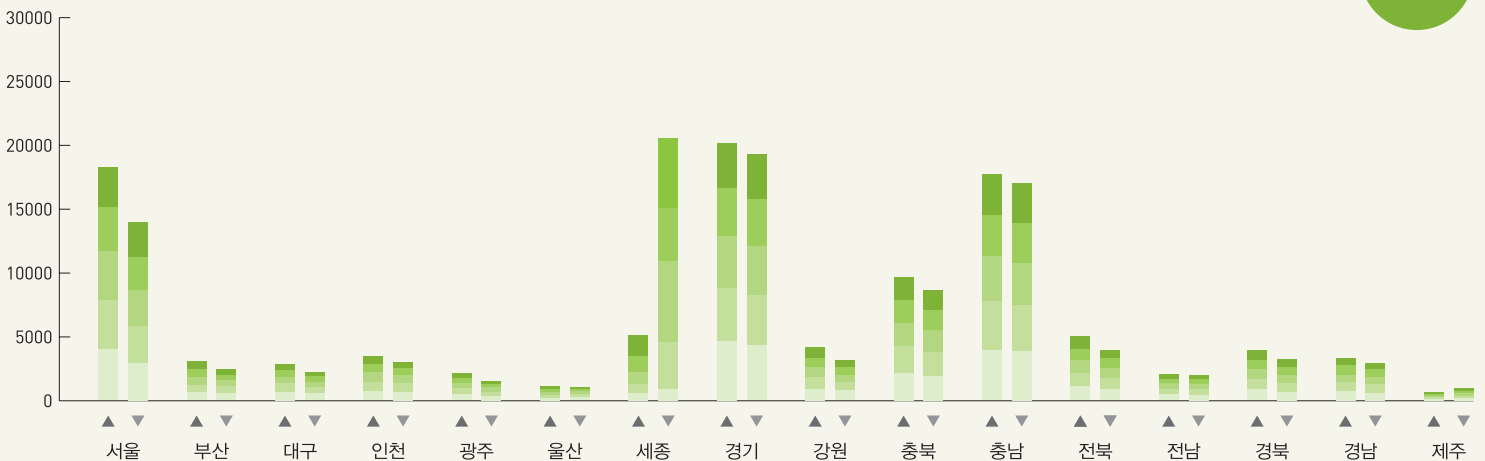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대전으로 전입 ▼: 타지역으로 전출 단위: 명



20대

최근 5년간 전출입 인구 누적 현황 (30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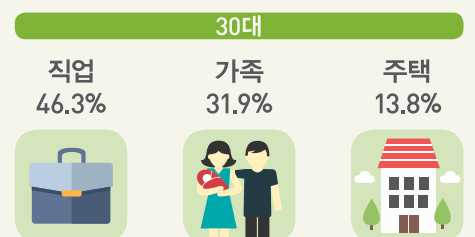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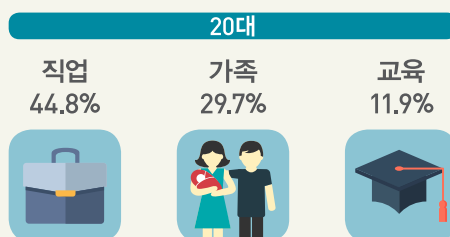
■: 2013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대전으로 전입 ▼: 타지역으로 전출 단위: 명



30대

대전을 떠나는 이유 세가지

전입신고서를 바탕으로 청년 인구가 대전을 떠나는 이유를 분석한 결과 20대는 '직업(취업, 사업, 직장이전 등)', '가족(가족과 함께 거주, 결혼, 분가 등)', '교육(진학, 학업, 자녀 교육 등)' 순으로 나타났고 30대는 직업, 가족, 주택(주택 구입, 계약만료, 집세, 재개발 등) 순서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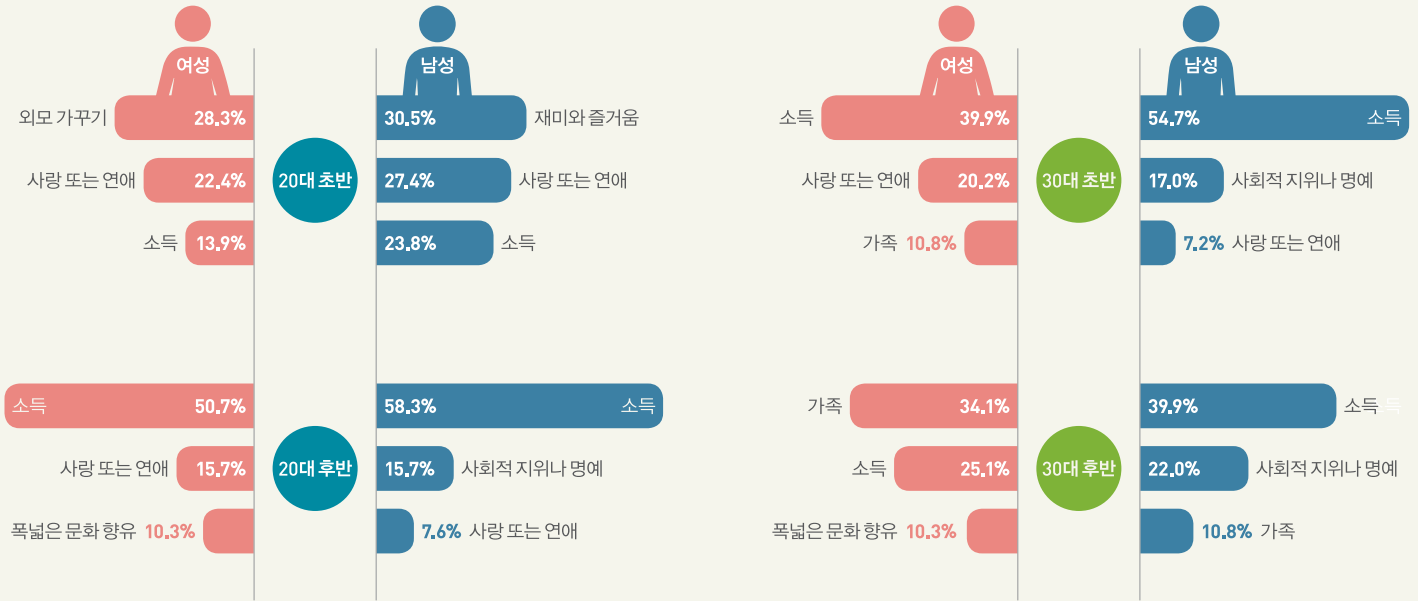
*자료: 국가통계 마이크로데이터 서비스 시스템(MDIS), 국내인구이동통계 원자료(2016)

*주: 20대는 만 19세-29세, 30대는 만 30세-39세를 의미하며 2,30대 인구 중 1인이 이동하는 경우만 선택함.

대전 청년들에게 물어보았다!

* 정주결정요인에 대한 직접 질문과 2018년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대전시 청년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자, 청년단체 활동가 등 청년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223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임.
 * 이 조사는 자신의 경험 혹은 자신에 대한 물음에 답하는 것이 아니라 20~30대의 청년의 입장에서 있을 법한 경우를 응답하게 하는 조사임.
 * 모바일 설문 내용은 청년의 관심사, 가치관, 대전 거주 이유, 정주 지속 전망, 지속 이유, 중단 이유로 구성되어 있음.
 * 응답자는 총 223명으로 남성 99명, 여성 124명이고 연령대로는 20대 159명, 30대 55명, 40대 이상 9명임.
 * 출처: 주혜진(2018), 대전시 인구변화 특성과 인구 유입 대책 제안 - 20~30대 인구를 중심으로, 대전세종연구원.

대전 청년들의 관심분야 BEST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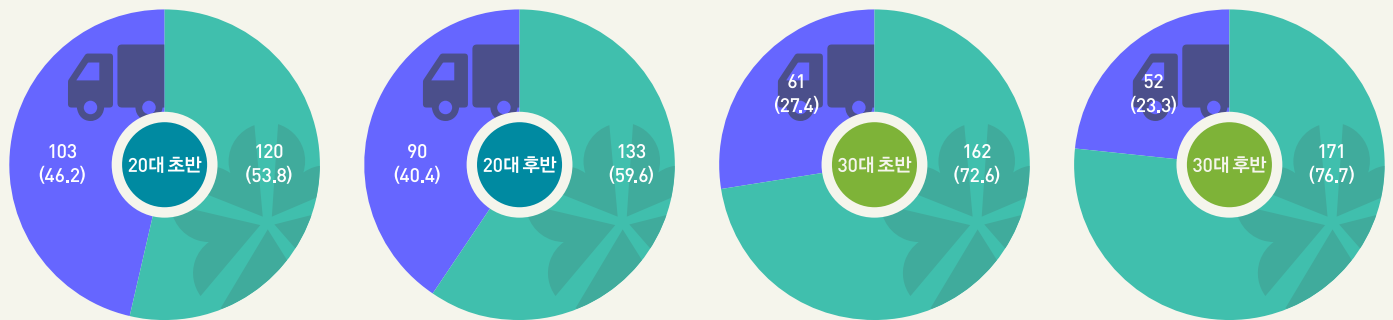


청년들은 1차적으로 일과 소득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재미와 즐거움, 외모, 연애에서 취업과 사회적 지위, 가족으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만 남성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지위나 명예로, 여성은 가족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 질 것이라는 추정이 특징으로 드러났다. 그리고 폭넓은 문화향유는 특히 여성에게서 주요 관심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인구, 계속 살까?

● : 계속 대전에 살 것 ● : 대전을 떠날 것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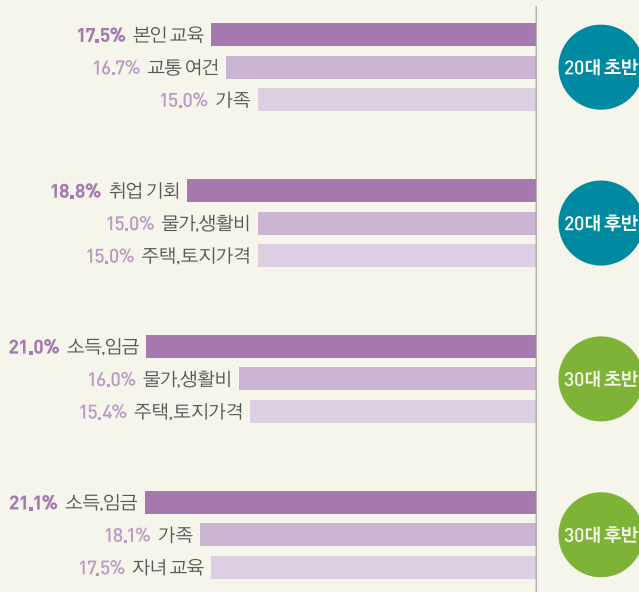


모바일 조사에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대전에 정주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전에서 계속 살게 될 이유는 생애 주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이유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저렴한 물가와 생활비를 바탕으로 가족과의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대전의 매력으로 생각하는 청년들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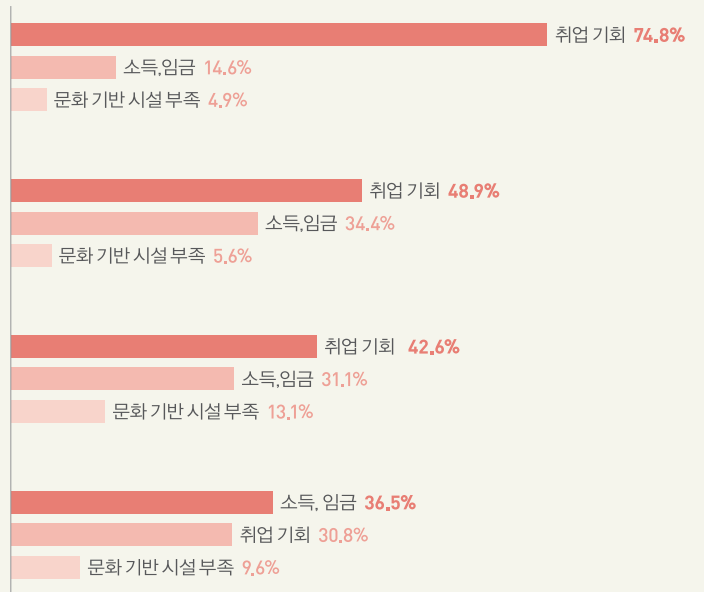
한편 대전을 떠나게 될 경우에 그 이유로는 취업과 소득에 대한 문제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정주 중단 이유로 20대 초반은 '취업기회'의 부족을, 30대 후반은 '소득'의 증가를 위해서라는 선택은 연령대별로 직면해있는 환경의 차이를 보여준다. 대전을 떠날 이유 중 '문화 기반 시설 부족'이 공통적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은 청년세대에서 다양하고 흥미있는 문화 생활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관이 커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대전에서 살 이유는 뭘까?



대전을 떠날 이유는 뭘까?



청년과 대전, 이제 손잡고 “문화” 산책 시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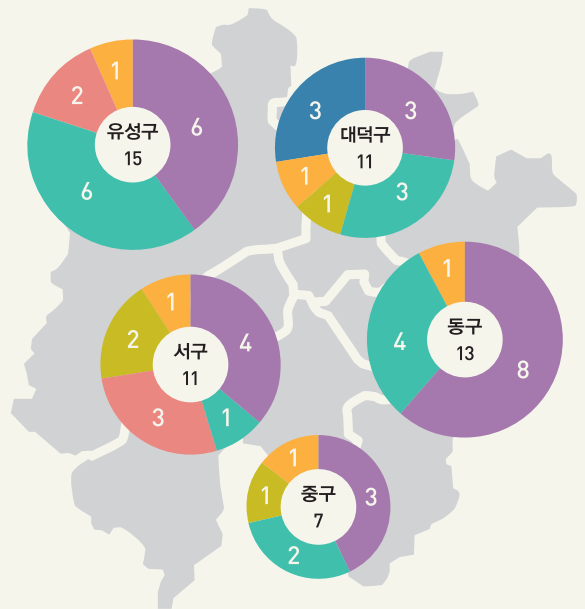
8개 특·광역시 중에서 대전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수는 57개로 전체 5위에 해당하는 순위지만 인구 100만명당 시설수로 비교하면 37.94개로 세종, 광주에 이어 전체 3위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자치구별 문화시설의 수는 차이가 나타난다.

대전시는 홈페이지와 블로그, BAND, 페이스북 등의 온라인과 『It's Deajeon』을 비롯한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물을 통해 대전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생활과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원도심만을 위한 음식·문화지도 등도 제작해서 배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이 대전에는 즐길 문화가 없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과 대전시에서 만들어내고 있는 문화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의미가 아닐까? 청년들이 대전에 계속 거주하게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일자리 같은 경제적인 환경 조성도 중요하지만 청년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생활의 교차점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대전시 자치구별 문화기반시설 현황 (2017.1.1.기준)

* 출처: “2017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 문화체육관광부” 에서 발췌 정리

● : 공공도서관 ● : 박물관 ● : 미술관 ● : 문예회관 ● : 지방문화원 ● : 문화의집
단위: 개소



제3회 젠더 콜로키움 **밋밋한 사고에 주름을 잡다**

“신상옥의 『지옥화』에 나타난 신식민주의 근대성과 젠더 민족주의”



대전여성가족정책센터는 여성·가족분야의 새로운 이슈와 담론을 파악하기 위해 젠더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있다. 지난 8월 16일에는 한성대학교 황정현 교수의 발표로 전후 1950년대의 한국사회의 모습과 젠더 민족주의의 실태를 신상옥 감독의 영화 『지옥화』를 통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황정현 교수는 1950년대 신식민주의의 형성배경과 생활상의 변화 등을 바탕으로 한국적 근대성의 형성과정을 소개하고 이 과정에서 이상적인 ‘현모양처’와 성적대상인 ‘양공주’로 이분화되어 억압받는 여성의 시대상을 소개했다.